

6·25전쟁 당시 사용된 가죽가방의 보존처리와 구조적 특징

Conservation Treatment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Leather Briefcase Used during
the Korean War

강현삼^{1*}, 장한울¹, 이현주², 구지혜³
전쟁기념관 전시유물부¹,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²,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³

Kang Hyunsam^{1*}, Jang Hanul¹,
Yi Hyeonju², Gu Jihye³
The War Memorial of Korea¹,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²,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³

요약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활동하였던 참전용사의 서류가방을 보존 처리하고 주요 구성 재질인 가죽에 대해 동물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관련 연구 성과를 낸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진과 함께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죽의 표면 특징을 분석한 결과, 많은 모공이 관찰되고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며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아 송아지 가죽으로 추정하였다. 가방은 가죽과 함께 목재로 구성되어 있다. 오랜 기간 열화로 인해 목재와 가죽이 틀어져 있어 구조적 안정을 위한 보존처리가 필요하였다. 우선 내·외부에 고착된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가죽이 경화되어 딱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연화를 위한 가습 과정을 거치고 아교를 사용하여 접합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수하였다. 이번 보존처리 및 가죽 분석 결과가 향후 가죽 유물 및 전쟁·군사 유물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전쟁 · 군사 유물, 6 · 25 한국전쟁, 서류가방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conservation treatment of a briefcase used by a soldier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The zoid characteristics of its main material, leather, were analyzed in collaboration with the researchers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ho have conducted relevant research. A plan for conservation treatmen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briefcase was made of leather with a wooden frame. The many densely arranged tiny pores in different patterns on the leather's surface suggests calf leather. The wooden frame and leather had suffered deformation over long years of deterioration and thus required conservation treatment to enhance their structural stability. The conservation treatment began with the removal of contaminants from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the briefcase. The stiffened leather was softened through humidification, and torn or separated areas were restored using cowhide glu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conservation treatment and analysis of the leather material will serve as useful sources for basic research on leather items as well as wartime and military items.

Keywords : War and Military Property, Korean War, Briefcase

* Corresponding Author :
Kang Hyunsam

1. 서론

본 연구는 전쟁기념관 소장 서류 가방의 보존처리와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이다. 보존처리 대상인 서류 가방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콜롬비아의 A.V. TOVAR 참전용사가 사용한 가방이다. 유엔 참전국 중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에서 유일하게 전투병과 군함을 파병한 나라이다. 콜롬비아 대대는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으며 전사 213명, 부상 448명, 포로 28명 등 689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1]. 오늘날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은 70년 전 받았던 지원에 대한 감사로 콜롬비아의 국토방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콜롬비아를 포함한 유엔 참전국에 관한 전시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전시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6·25전쟁 관련 유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콜롬비아 서류가방’은 1990년 콜롬비아주재 한국무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이다. 6·25전쟁 당시, 실제 참전용사가 사용하였기에 중요한 사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서류가방은 가죽과 나무 등의 재료로 이루어진 일종의 공예품이었다. 고가의 사치품이었고 군 장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쌀 한 가마니와 바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2].

가방은 재질적으로 금속·가죽·목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 유물에 사용된 가죽의 식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죽 조직의 내구성이나 미적인 특징 등 동물별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표면과 단면을 관찰하여 동물 종을 감별하는 현미경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3]. 해석에 따른 주관적 견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함께 진행한 ‘가죽문화재 식별 분석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추가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서류가방의 보존처리 및 분석을 통해 올바른 전쟁·군사 유물의 보존처리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추후 전쟁·군사 유물 보존처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대상 유물은 콜롬비아 서류가방 1점이다^(도1). 서류가방의 표면에는 ‘BATALLON COLOMBIA’ 라는 표시와 함께 콜롬비아 보병대대를 상징하는 부대 마크가 표기되어 있다. 또한 태극기도 함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 사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도1. 보존처리 대상 유물(콜롬비아 서류가방)

손잡이가 달린 직육면체 구조로 가로 56cm, 세로 32cm, 두께 8cm이다. 잠금 및 여닫이를 위한 장식이 존재하고 주 지지대는 목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죽이 둘러싸인 구조로 되어 있다. 장식은 부식 진행이 확인되었으며, 서로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목재와 가죽 부분이 들떠있었다. 목재로 구성된 틀에서도 고정 못이 이탈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였다. 목재틀이 어긋나면서 함께 부착된 가죽 역시 함께 손상되어 있었다^(도2,도3). 손상부를 확인하며 처리 전 사진 촬영과 상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도2. 목재틀 손상 부위

a	b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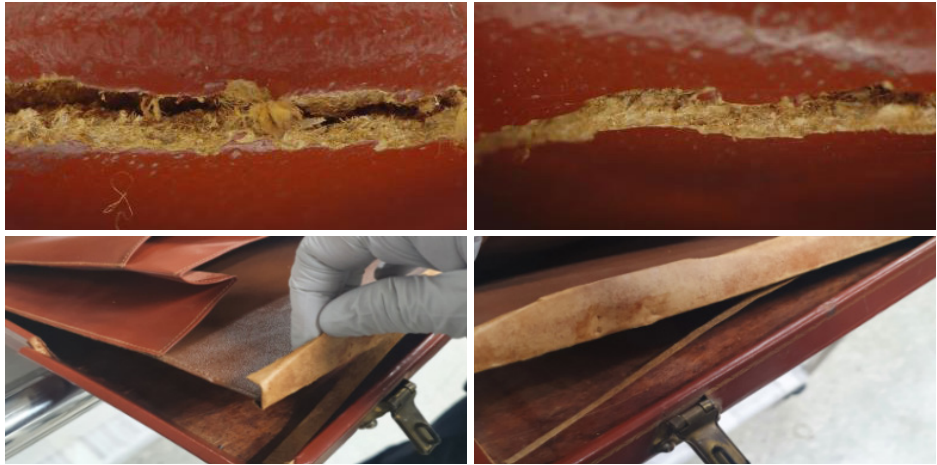
- (a) 전면
(b) 후면
(c) 콜롬비아 부대 마크
(d) 대한민국 국기 등 각인

a	b
c	d

- (a) 좌측 중앙
(b) 우측 중앙
(c) 우측 상단 모서리1
(d) 우측 상단 모서리2

a	b
c	d

- (a) 좌측 중앙(비디오
현미경, ×60)
(b) 우측 중앙(비디오
현미경, ×60)
(c) 우측 상단 모서리1
(d) 우측 상단 모서리2



도3. 가죽 손상 부위

이후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진과 함께 각 손상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였다. 표면에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었고, 내부 역시 먼지를 비롯한 이물질이 확인되었기에 제거를 위한 세척 작업을 진행하였다. 손잡이를 고정하고 있는 장식과 가방의 여단이 역할을 하는 장식의 금속부는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Paraloid-B72 5wt.%(in Acetone)를 도포하였다. 틀어진 목재틀과 분리된 목재와 가죽 사이는 아교(토끼 아교 2wt.% in Water)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서류 가방에 사용된 가죽을 식별하기 위해 함과 부대 마크 및 각인 부분의 손상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면 분석은 고정형 렌즈가 아닌 휴대형 타입의 현미경(비디오 현미경 IMS 1080P, SOMETECH VISION)을 사용하였으며 ×60, ×160 배율을 활용하였다^(도4).

a	b
---	---

- (a),(b) 표면 및 내부
촬영



도4. 현미경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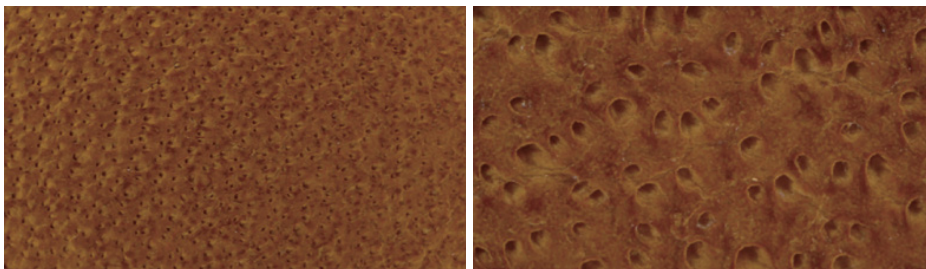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및 보존처리

3.1. 가죽 식별 분석 결과

가죽의 동물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물 종별 분석은 (1)모공의 크기, (2)모공 간 간격, (3)모공의 밀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모공의 형태 변화의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많은 모공이 관찰되었고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도5). 또한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게 관찰되어 송아지 가죽으로 추정하였다^(도6).



도5. 서류가방 표면 현미경 촬영(×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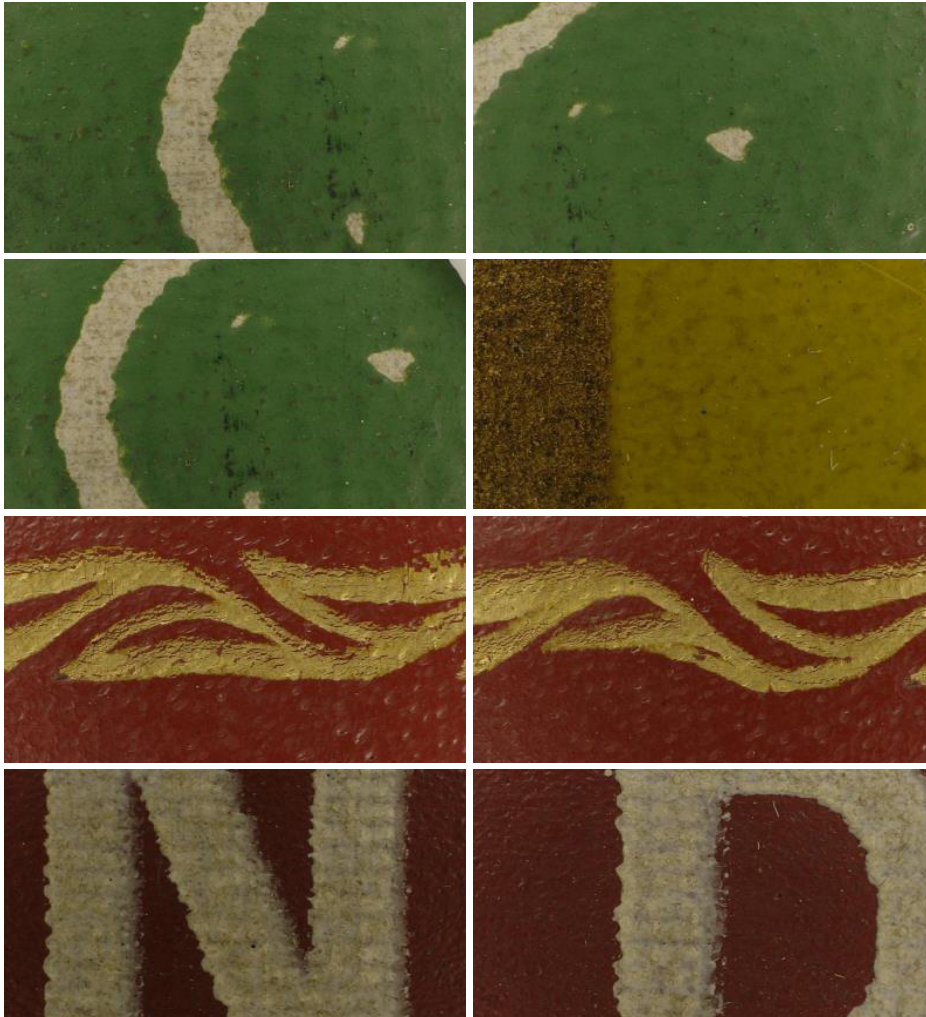


도6. 송아지 가죽 표면(×60, 가죽문화재 식별 분석 공동연구서)

각인 부분의 손상도를 확인하고 차후 비교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서류가방의 각 부분에 대한 현미경 촬영도 진행하였다^(도7,도8).



도7. 태극기 및 각인 표면 현미경 촬영(×60)



도8. 각인 표면 현미경 촬영($\times 60$)

3.2. 보존처리

3.2.1. 오염물 제거

서류가방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내·외부에 이물질이 고착된 상태였다. 우선 붓과 면봉을 사용하여 건식으로 표면을 세척하였다. 이후 오염물이 심하게 고착된 부분만 알코올(Ethyl Alcohol Anhydrous 99.5%)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습식 세척을 하였다. 오염물이 침착되기 쉬운 내부의 모서리 부분은 Museum Vacuum Cleaner(Vacuum Cleaner with HEPA Filter, Museum Vac, Pel)를 이용하여 세척을 진행하였다. 가죽 및 목재 외 금속 등의 장식은 Ethyl Alcohol Anhydrous 99.5%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3.2.2. 가죽 연화

가죽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공기로 부터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가죽가방 역시 이와 같은 상태였다. 효과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가습기기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수분을 주입하였다.

3.2.3. 손상부 보수 및 안정화

손상이 많이 확인된 부분은 특히 접히는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이었다. 목재와 목재 사이를 고정하는 금속 못까지 드러난 상태였다. 못이 박혀있던 구멍이 확장됨에 따라, 고정 못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물의 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 못을 제거하고 아교(토끼 아교 2wt.% in Water)로 틀어진 모서리를 고정하였다. 접착 후에는 일정한 압력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식과 같은 금속부에는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Paraloid-B72 5wt.%(in Acetone)로 두 번 강화처리를 하였다.

3.2.4. 마무리 및 전시

보존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물이 안전하게 전시될 수 있도록 가방을 닫은 상태에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콜롬비아 참전 70주년 특별전인 ‘Glacias Colombia’ 전시에 활용되었으며 지속해서 UN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a	b
c	d

(a),(b) 보존처리 전
(c),(d) 보존처리 후





e	f
g	h

(e),(f) 보존처리 전

(g),(h) 보존처리 후

도9. 서류가방 보존처리 전/후 사진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가 사용한 서류가방의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도9).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진과 함께 서류가방에 사용된 가죽의 동물 종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많은 모공이 관찰됨과 함께,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것,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모공의 크기, (2)모공 간 간격, (3)모공의 밀도를 확인하여 서류가방에 사용된 가죽을 ‘송아지’ 가죽의 특성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서류가방은 오랫동안 보존처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내·외부에 이물질이 심하게 고착된 상태였고, 구성하고 있는 목재틀이 뒤틀리고 이로 인해 가죽 역시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여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보존처리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차후 전시로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처리 전 상태조사 → 오염물 제거 → 가죽 연화 → 손상부 보수 및 안정화 → 마무리 및 전시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내·외부 세척은 붓과 면봉을 사용한 건식세척, 오염물이 심하게 고착된 부분만 알코올(Ethyl Alcohol Anhydrous 99.5%)과 증류수를 사용한 습식 세척을 진행하였다.

세척을 완료하고 가죽 연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가죽이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습기기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수분을 주입하여 상태를 회복하였다. 이후 기존의 쇠못을 제거하고 충분한 접착성이 있는 아교를 활용하여 가장자리 부분을 보수하였다. 장식과 같은 금속부에는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Paraloid-B72 5wt.%(in Acetone)로 두 번 강화처리를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유물이 계속해서 발굴되어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에서는 이를 포함한 전쟁·군사 유물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 보존처리를 하며 유물의 안정적인 보존 및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서류가방의 보존처리 및 가죽 분석 결과가 향후 가죽 유물 및 전쟁·군사 유물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부대 마크 및 각인을 포함한 현미경 사진은 차후 서류가방의 열화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 전쟁*, p384, (2014).
2. 김성철,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파주, p280, (2009).
3. 국립고궁박물관, *가죽문화재 식별 분석 공동연구서*, p14, (2020).
4. 김수철, 최재완, 이지은, 근·현대문화재 인력거 재질 분석연구, *보존과학회지* **32**, p33-42, (2016).
5. 김수철, 박정혜, 장한울, 최재완, 안주영, 근·현대문화재 인력거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32**, p203-213, (2016).
6. 강대일, 박혜진, 보존환경에 의한 피혁유물의 손상 연구 : 자외선과 수분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7**, p.155-162, (2011).
7. 조하늬, 남도현, 김미현, 이재성,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수습 철제 총기류의 보존처리와 탈염처리 방법 고찰, *보존과학회지* **37**, p821-830, (2021).